

# ‘넷플릭스 규제법’이라더니... 네이버·카카오만 역차별

## 전기통신법 시행령 논란

망 품질 유지의무에 이중 부담  
인기협 “규정·용어 모두 애매  
비용 증가, 소비자 부담 초래”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 된다. 시행령은 넷플릭스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사업자(CP)들이 이동통신망 과부하에 따른 서비스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규제한다던 법 시행령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이미 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에 더해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 적용대상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으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 된다. 사진은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부가통신사업자 적용대상을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트래픽을 기준으로 약 1만5000개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약 8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2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미국 IT 공룡기업과 카카오, 네이버 등 5개 기업이 포함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해야 하며,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15일내 반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가 개정됨에 따라 반례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담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혜택이 집중된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

다. 또 도매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더 쉽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IoT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기존에 부과되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돼 IoT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인기협 “특정 사업자 과도한 의무 부과 부담, 규정도 모호” 전면 개정도 촉구, 포털 등 CP 기업들 반발

인터넷 기업들이 이 같은 시행령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이 개정안에서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시행령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을 설정해 서비스 안정성 조치의무 대상 사업자로 정했지만 평균 이용자 수에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일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조항에서 국내 총량이 실제 소용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된다는 것.

인기협은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트래픽의 1%조차 안정하게 관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많고, 불투명한 통신시장에서 또 다시 이용자 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업자의 망 비용 증가를 초래해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또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트래픽 경로 관리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수행한 후 이행 현황 자료를 과기부 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의무사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별도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등 CP업체들도 “망 안전성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에 물어야 한다”며 이번 시행령은 통신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채윤정 시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여성기업인 71% “워라밸 균형잡기 어려워” 롯데·신세계, 추석 전 납품대금 조기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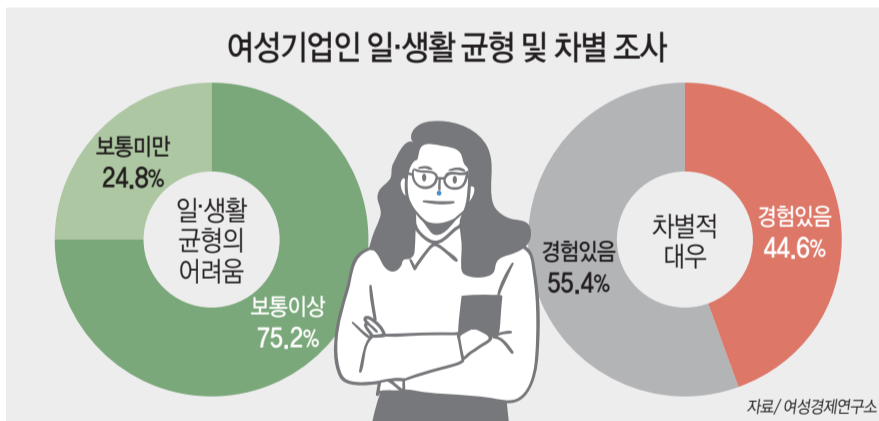
여성경제연구소  
10명 중 4명 “차별적 대우 경험”

여성기업인들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및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 여성경제연구소는 여성기업인의 일·생활 균형 및 차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업체 4만696개사가 참여했다.

여성기업인 대부분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감이 높다는 응답은 59.1%, 행복감이 높다는 응답은 67.9%였다. 다만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는 71.0%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밖에도 ‘집안일이 많아 일과 병행이 어려움’이 어렵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특히 여성기업인의 44.6%가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여성경영인의 능력 및 전문성에 대



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38.8%로 가장 높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기업인들은 ‘일·가정 양립을 지키기 위해 시간 투자를 많이 함’이 29.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외부 미팅이나 거래처에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도 26.7%로 뒤를 이었다. 향후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도 73.5%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남성 대비 요구되는 전문성이 높으므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는 이유였다. 여성경제인협회 이의준 상근부회장은 “여성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환경에서 남성과 비교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인력 고용 지원, 양육 비용 소득공제, 긍정적인 사회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롯데, 1.3만개 파트너사에 선지급  
신세계, 1900억원 규모 조기 집행

롯데와 신세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유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품대금을 조기집행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는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들을 돕기 위해 조기 대금지급을 서둘러 결정했다. 롯데는 지난 2013년부터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명절을 맞아 파트너사들이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롯데백화점, 롯데e커머스, 롯데정보통신,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등 35개사가 참여하며, 약 1만3000개의 중소파트너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3일 전인 9월 28일까지 모든 지급을 완료할

예정인 평상시 대비 평균 약 12일 앞당겨서 지급하게 된다.

신세계 그룹이 조기 지급하는 납품대금의 규모는 총 약 1900억원이다. 각 사별 조기 지급 대금 규모는 이마트가 300여개 협력사에 약 1300억원, 신세계가 1600여개 협력사에 약 500억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150여개 협력사에 약 120억원 규모다.

신세계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납품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정산일로부터 4일~10일 앞당겼다.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기존 9월 29일 정산분을 9월 25일로 4일 앞당겨 지급하며, 신세계는 10월 8일에 예정되어있던 지급 일자를 10일 앞당겨 9월 28일에 지급한다.

신세계그룹은 중소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명절에 앞서 상품대금의 조기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두산, 지게차 디지털 플랫폼 새단장

국내 지게차 시장점유율 1위인 두산이 지게차 디지털 플랫폼인 ‘두산로지피아’ 포털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한다.

두산은 언택트(비대면) 시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게차 디지털 플랫폼인 ‘두산로지피아’ 포털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한다고 8일 밝혔다.

두산로지피아는 두산산업차량BG의 지게차 렌탈과 중고 거래,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 두산의 검수 과정을 거쳐 품질이 보증된 중고 지게차를 판매한다. 이번 포털 리뉴얼로 오픈한 ‘중고 장비 직거래 장터’에서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매물을 올리고

거래할 수 있다. 지게차 정비도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두산이 자체 개발한 원격 관리 시스템인 ‘린큐(Lin-Q)’나 QR코드를 통해 원격으로 장비를 관리받을 수 있다.

포털에서 지게차 렌탈이나 중고거래를 한 고객에게 다음번 구매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대한항공 “마스크 착용 거부면 탑승 거절”

대한항공이 통합 방역 프로그램을 통해 탑승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 지키기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의 일환으로,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지속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세부 절차 마련은

국적항공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